

# 국내 비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보고서 발간 현황 분석

CSR현황Ⅱ

안상아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

## I. 들어가며

지속가능경영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는 주체로는 국내 상장기업과 공공기관에 이어, 비상장기업, 비영리법인, 정부 부처, 기초자치단체를 꼽을 수 있다. 이 중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회적기업, 사회복지법인 등 포함)의 경우, 한국여성재단, 환경재단, 서울문화재단, 다솜이재단 등 약 10개 내외 법인이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 부처 중에서는 지식경제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 강동구청만이 유일하게 발간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비상장기업에 국한하여 그들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보고서 발간 현황을 발간 연도, 발간 주기, 보고서 종류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상장기업<sup>1)</sup>의 경우,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하여 지속가능(성/경영)보고서, 환경보고서, 탄소경영보고서, 환경·사회보고서, 사회책임경영보고서, 사회공헌(활동)백서, CSR 보고서, 통합보고서, UN GC 이행보고서(CoP) 등 다양한 명칭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연차 보고서(Annual Report)나 회사소개서에 지속가능성보고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공공기관<sup>2)</sup>이 발간하는 보고서의 경우, 지속가능(성/경영)보고서, 사회책임경영보고서, 사회공헌활동보고서<sup>3)</sup>, UN GC 이행보고서(CoP)를 들 수 있었다. 이상 상장기업과 공공기관은 국내 지속가능경영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는 핵심 주체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위 두 개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발간주체-비상장기업, 비영리법인,

1) 안상아, 2013.5, 「국내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현황 및 분석」, 한국기업지배구조원, CG리뷰 통권 68호 pp. 88-111 참조

2) 안상아, 2013.7, 「국내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현황 및 분석」, 한국기업지배구조원, CG리뷰 통권 69호 pp. 74-97 참조

3) 국민연금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회책임경영보고서를, 한국예탁결제원은 사회공헌활동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정부기관, 기초자치단체 등- 중에서 비상장기업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조사 대상은 이들이 발간하는 지속가능(성/경영)보고서, 환경보고서, 사회공헌활동보고서, 사회적책임경영보고서, CoP<sup>4)</sup>만을 위한 CoP로 추릴 수 있었다.

자료 수집을 위해 각 기업의 홈페이지와 UN GC 홈페이지를 이용하였으며 연도별 발간 현황 추산 시, 보고서의 보고대상 연도가 아닌 발간 연도를 기준으로 삼았다. 조사대상 기간은 조사대상 중에서 발간이 가장 앞선 경우가 2004년에 최초로 사회공헌활동 보고서(Community Relations)를 발간한 교보생명이기 때문에 2004년부터 2013년 8월까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 II. 비상장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보고서 발간 현황

국내 비상장기업 중에서는 21개사가 [표 1], [표 2]와 같이 지속가능경영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발간 실적이 있는 21개사 중 대규모 기업집단<sup>5)</sup> 소속인 경우는 포스코 그룹 내 4사(포스코특수강,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플랜텍)와 현대자동차 그룹 내 1사(현대엔지니어링), STX 그룹 내 2사(STX건설, STX에너지), LS 그룹 내 2사(LS엠트론, LS전선), GS 그룹 내 1사(GS칼텍스)로 총 10개사였다. 다음으로, 외국계 비상장기업<sup>6)</sup>은 유한킴벌리, 듀폰코리아, 한국바스프, 한국스탠다드차타드그룹, 한국 코카콜라로 총 5개사였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기업집단과 외국계기업,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총 5개사(애경산업, 경신, 스포츠토토, 교보생명, BGF리테일, 유니베라)였다.

4) UN Global Compact(이하 UN GC)에 서명한 기관은 UN GC 10대 원칙 준수를 증명하는 이행보고서(Communication on Progress, 이하 CoP)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는데 많은 기관들이 지속가능(성/경영)보고서, 사회공헌백서 등을 통해 이를 대체하고 있으며, CoP 자체를 제목으로 하여 보고서를 발간한 경우도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13.7월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내역」, 2013.8.1.에서 확인하였다.

6) 외국계기업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칭하는 '외국법인'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국내에 출자한 법인을 칭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표 1〉 비상장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보고서 발간 현황

[범례: CoP만을 위한 CoP=△, 지속가능(성/경영)보고서=○, 사회공헌활동보고서(백서), 사회책임경영보고서=□, 환경보고서=☆]

	기관명	UN GC*	보고서 발간년도							누적 횟수	
			~'06	'07	'08	'09	'10	'11	'12		'13.8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비상장기업 (총 10사)											
1	포스코특수강						○	○	○	○	4
2	포스코건설	★					☆	☆	○	○	[2] 2
3	포스코에너지	★							○	○	2
4	포스코플랜텍								○		1
5	현대엔지니어링	★					○		○		2
6	STX건설						○	○	○		3
7	STX에너지						○	○	○		3
8	LS전선	★						○	○		2
9	LS엠트론	★					○	○	○	○	4
10	GS칼텍스	★	☆(05) ○(06)	○	○	○	○	○	○		[1] 7
외국계 비상장기업 (총 5사)											
1	유한킴벌리	★	○	○	○	○	□	□	□		4 <3>
2	듀폰코리아								○		1
3	한국 코카-콜라			☆	☆	☆	☆	☆			[5]
4	한국바스프		○		○		○	○	○		5
5	한국스탠다드 차타드그룹								○	○	2
기타 비상장기업 (총 6사)											
1	애경산업				☆	☆	☆	☆	☆	☆	[6]
2	경신 (구 경신공업)		☆(05) ☆(06)	☆		○	○	○	○	○	[3] 5
3	스포츠토토						□	□	□	□	<4>
4	교보생명	★	□□□ (04~06)	□	□	□	□	○	○		<7> 3
5	BGF리테일(구 보광페리마켓)	★						△		△	(2)
6	유니베라 (구 남양알로에)	★						○		○	2
소 계	CoP = △		-	-	-	-	-	1	-	1	(2)
	지속가능 = ○		3	2	3	3	8	10	15	8	52
	환경 = ☆		3	2	2	2	3	3	1	1	[17]
	사회공헌/책임=□		3	1	1	1	3	2	2	1	<14>
연도별 합계 (총 21개 기업)			9	5	6	6	14	16	18	11	85

\* ★는 UN GC에 가입하였으며 정상 가입상태(Active)인 경우, ☆는 과거 UN GC에 가입하였으나 CoP 제출 지연으로 주보고로 분류되거나 제명된 경우, 공란은 UN GC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표 2〉 비상장기업이 가장 최근 발간한 지속가능경영 관련 보고서의 작성 현황(2013.8 기준)

[범례: CoP만을 위한 CoP=△, 지속가능(성/경영)보고서=O, 사회공헌활동보고서(백서), 사회책임경영보고서=□, 환경보고서=☆]

	기관명 (볼드체는 UN GC 서명 기업)	가장 최근 보고서 (발간연도)	작성 기준	적용 수준*	제3자 검증 여부	검증 주체
<b>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비상장기업 (총 10사)</b>						
1	포스코특수강	○ (2013)	-	-	-	-
2	포스코건설	○ (2013)	G3.1, ISO26000, UN GC	A+	○	DNV
3	포스코에너지	○ (2013)	G3.1, ISO26000, UN GC	A+	○	EY한영
4	포스코플랜텍	○ (2012)	G3.1, ISO26000	A+	○	한국표준협회
5	현대엔지니어링	○ (2012)	G3.1, 건설부동산 산업부가지표, ISO26000, UN GC	-	○	DNV
6	STX건설	○ (2012)	G3.1	-	-	-
7	STX에너지	○ (2012)	G3.1	-	-	-
8	LS전선	○ (2012)	G3.1, ISO26000, UN GC	A+	○	한국표준협회
9	LS엠트론	○ (2013)	G3.1, ISO26000, UN GC	-	○	대한상의
10	GS칼텍스	○ (2012)	G3.1, ISO26000, UN GC	A+	○	한국표준협회
<b>외국계 비상장기업 (총 5사)</b>						
1	유한킴벌리	□ (2013)	G3.1, ISO26000, UN GC, BSR가이드라인	A+	○	DNV
2	듀폰코리아	○ (2012)	-	-	-	-
5	한국 코카-콜라	☆ (2011)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	-	-
6	한국바스프	○ (2012)	-	-	-	-
7	한국스탠다드 차타드그룹	○ (2013)	-	-	-	-
<b>기타 비상장기업 (총 6사)</b>						
1	애경산업	☆ (2013)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GRI	-	-	-
2	경신 (구 경신공업)	○ (2013)	G3	B	-	-
3	스포츠토토	○ (2013)	-	-	-	-
4	교보생명	○ (2013)	G3.1, UN GC, GRI 금융업 부가지표, ISO26000, BEST	A+	○	한국표준협회
5	BGF리테일(구 보광페미리마트)	△ (2011)	UN GC	-	-	-
6	유니베라 (구 남양알로에)	○ (2013)	G3, ISO26000, UN GC	-	-	-

\* 적용수준은 자체 발표할 수도 있고, 제3자나 GRI가 부여할 수도 있는데 등급이 서로 다를 경우엔 더 높은 것으로 표기하였다.

## 1.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비상장기업

포스코그룹 내에서는 상장기업인 포스코를 비롯해 비상장기업인 포스코특수강,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플랜틱까지 4개사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사실 포스코그룹은 포스코를 중심으로 ‘포스코패밀리 지속가능경영체제’를 그룹 전사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포스코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도 그룹사 전반의 경영정보가 다뤄진다. **포스코특수강**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디자인,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하여 별도의 작성기준이나 제3자 검증 없이 2010년부터 매년 작성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2010, 2011년 환경보고서를 발간하다가, 2012년 UN GC에 가입하면서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매년 발간하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올해 발간한 보고서의 경우, G3.1, ISO26000, UN GC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대조표, 제3자(DNV) 검증의 견서를 두었고 적용수준은 A+이다. **포스코에너지**와 **포스코플랜틱** 역시 2012년 최초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마찬가지로 G3.1, ISO26000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대조표, 제3자(각각 EY한영, 한국표준협회) 검증의견서를 두었고 적용수준은 A+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국내 엔지니어링 업계 최초로 2010년 6월 UN GC에 서명하였으며, 역시 업계 최초로 같은 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최초 보고서는 2007~2009년 성과를, 2012년 발간한 두 번째 보고서부터는 2010~2011년 성과를 담는 식으로 하여 격년 발간하고 있다. 가장 최근 보고서의 경우, GRI G3.1 / ISO 26000 대조표를 두고 있으며, GRI G3.1 적용 수준 A+, 제3자(DNV인증원) 검증성명서를 포함하고 있다. 양이 100페이지에 달하며, 美 커뮤니케이션연맹(LACP)이 주최하는 세계홍보물대회인 Spotlight Awards<sup>7)</sup> 출판물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STX그룹은 2010년을 원년으로 하여 그룹 차원에서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계열사 각각으로도 발간하고 있다. 계열사 중 상장사인 STX엔진, STX중공업, STX조선해양, STX팬오션, STX메탈(2012년 STX중공업에 합병) 모두 2010년부터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비상장 계열사인 **STX건설**, **STX에너지** 역시 발간하고 있다. STX건설, STX에너지 모두 GRI 3.1 기준으로 작성하여, GRI G3.1대조표를 두고 있지만 적용수준이나 제3자 검증은 빠져있다.

LS그룹 내 주력계열사이자 전선분야 매출액 세계 3위사인 **LS전선** 또한 LS엠트론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경영협의회와 그 아래 지속가능경영 사무국, 7개 분과를 두고 있다.

7) IR/PR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대회로, 매년 Fortune 500대 기업에 속한 기업들을 포함해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참가하고 있다. 세계적인 작가, 디자이너, 재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분야별 평가를 통해 수상 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2012년 10회째를 맞이하였다.

제3자(한국표준협회) 검증보고서, GRI G3.1/ISO 26000 대조표, GRI G3.1 적용 수준 A+임을 밝히고 있으며, CoP로 검용되었다.

산업기계·첨단부품업계에 속하는 **LS엔트론**은 2010년부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LS그룹 계열사 중 전기 장비 제조업체 코스피 기업인 LS산전 또한 2009년에 일회성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으며, LS전선의 경우 2011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사회 및 경영진 차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지속가능경영협의회 하에 지속가능경영 중대영역 별로 소위원회를 두어 주관 부서를 배분함으로써 각 사업부 참여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보고서 작성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위원회 주관 하에 각 해당 사업부 기획팀이 맡아 작성하였다. 제3자(지속가능경영원) 검증보고서, GRI G3.1/ISO 26000 대조표와 함께 GRI G3.1 적용 수준 A+임을 밝히고 있으며, 2011년 9월 UN GC 서명 이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CoP로 검용함에 따라 UN GC 색인까지 두고 있다. 영역별 핵심성과지표(KPI)와 지표별 담당부서, 보고대상 연도 내 이룬 성과와 그 다음 연도 계획, 기한이 보고서 소주제별 공통 양식으로 등장하여 체계적이고 통일된 느낌을 준다.

**GS칼텍스**의 경우, 허동수 회장(대표이사, '94~)이 2002년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orea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KBCSD)를 창설하여 지난 11년 간 회장사로 활동하는 등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가능경영을 선구적으로 추진해왔다. 환경부의「2004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발표에 힘입어 이를 기준 삼은 환경보고서를 2005년에 발간하였고, 그 다음 해부터 매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가장 최근 보고서의 경우, GRI G3.1 / ISO 26000 대조표, UN GC 원칙 대조표를 두고 있으며, GRI G3.1 적용 수준 A+, 제3자(한국표준협회) 검증 의견서를 포함하고 있다.

## 2. 외국계 비상장기업

국내 대표적인 위생·생활용품업체 **유한킴벌리**는 2006년부터 매년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다가 2010년부터 이를 사회책임경영보고서로 전환하였으며, 지난 7년 간(2006~2012) 발간된 보고서 모두 UN GC CoP로 검용되었다. 7년 연속으로 보고서 제목을 ‘사람이 희망이다’로 통일시켜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와 함께 유한킴벌리만의 인간 중심경영, 환경 경영을 상징하는 슬로건을 보고서 전면에 배치하였다. GRI G3.1과 BEST Index, ISO 26000 대조표, UN GC를 두고 있으며, GRI G3.1 적용 수준 A+, 제3자(DNV인증원) 검증명서를 포함하고 있다.

**듀폰코리아**는 211년 역사를 지닌 미국계 화학·에너지 기업 DuPont의 자회사로서 1977년 설립되었다. 미국 본사는 2011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왔으나, 듀폰

코리아가 자체적으로 발간한 시점은 2012년부터다. 가장 최근 발간된 본사와 한국 지사의 보고서 둘 다 12페이지로 상당히 짧은 편이며, 듀폰코리아 보고서 상당량이 본사 보고서 내용을 차용하였고 전문(全文) 한영 병기하였다. 크게 경영성과, 환경·안전성과, 사회공헌활동 세 분류로 이루어졌으며, 별도의 작성 기준이나 제3자 검증은 두지 않았다.

국내 진출한 **코카콜라**는 원액 제공·브랜드 관리와 유통·판매(Bottling)를 각각 담당하는 코카콜라음료(주)와 한국 코카콜라(유)라는 2개 독립 법인과 5개 생산 공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 코카콜라는 2007년 국내 음료 업계 최초로 환경보고서를 발간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매년 발간하다가 2012년 이후부터는 발간 실적이 없었다. 외국계 기업의 경우 본사의 보고서를 발췌·번역해 구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환경부의 「2007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하여 철저히 국내 공장 위주로 작성한 점이 돋보인다.

**한국바스프**는 1865년 설립된 독일계 글로벌 종합화학회사 BASF의 자회사이다. 1954년 한국에 진출한 이래, 2006년을 시작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격년 발간하다가 2010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경영, 환경 및 사회적 성과에 대한 통합 보고서」라는 부제를 두고 있으며 보고서 전문을 국·영문 병기하였고, 별도의 작성기준 적용이나 제3자 검증은 생략하였다. 또한 외국계 기업이라 하여 본사 보고서를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바스프에 국한한 수치, 지표들을 사용하여 실용성을 높였다.

**한국 스탠다드차타드그룹(Standard Chartered Korea)**은 금융지주회사로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스탠다드차타드펀드서비스 등을 비롯한 5개 자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 본사 홈페이지 양식을 본 따와서 그런지 한국 스탠다드차타드그룹의 지속가능성보고서는 13페이지로 간소함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지속가능경영이라는 별도 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를 매해 누적하여 게재하지 않고, 가장 최신 보고서만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별도의 작성기준이나 검증 없이 작성되었으며, 국내 지주사에 한정해서가 아니라 해외 지사의 보고서를 요약·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 3. 기타 비상장기업

애경 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인 **애경산업**은 세제, 샴푸, 화장품, 치약 등 생활용품 제조업체로서 2008년부터 매년 환경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 개요 란에는 환경부 발표 「2007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개정판)」과 GRI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고 적시하였으나 GRI 어느 버전을 기준으로 하는지 알 수 없고, 가이드라인 항목 별 해당 페이지를 정리한 대조표가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보고서 작성에 누가 참여하였는지 중



대성 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그 내역, 제3자 검증 역시 결여되어 있다. 보고서 내용 또한 지표(Index)나 목표치에 근거한 수치, 증감률보다는 단편적 성과 나열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경신(舊 경신공업)**은 자동차 전기배선 및 부품 제조 기업으로서, 환경부의 2004년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발표 바로 다음 해인 2005년부터 환경보고서를 작성하다가(~2007), 2009년부터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GRI G3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GRI 가이드라인 대조표와 함께 제3자 검증 없이 적용수준 B임을 자기 선언하였다. 사내 기획실에서 보고서 작성을 맡았으며, ISO 26000에 대한 반영은 없었다.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sup>8)</sup>사업의 수탁사업을 위해 2000년 12월 설립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마사회, 강원랜드 등과 함께 사행산업<sup>9)</sup>으로 분류되어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2010년 이래 매년 사회책임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사통위 실시 ‘사행산업시행기관 건전화 평가’<sup>10)</sup>에서 2010년부터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4조의 14에 의거, 매출의 대부분인 발매수익금의 일정비율을 스포츠 산업 발전, 사회 공익사업을 위해 쓰기 때문에 보고서 역시, ‘사행산업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주요 평가항목<sup>11)</sup>에 맞춰 작성하여 별도의 작성기준을 두거나 제 3자 검증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국내 3대 생명보험사 중 유일하게 비상장사인 **교보생명**은 1991년 공익재단(대산농촌문화재단) 설립 이후, 대산문화재단,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등을 이어 설립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2002년 12월 창단한 ‘교보다솜이 사회봉사단’의 경우, 간병봉사단 조직이 확대되어 고용노동부로부터 2007년 국내 최초의 사회적기업(공식명: 다솜이재단<sup>12)</sup>)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2003년 창단한 ‘교보다솜이 숲해설봉사단’ 역시 2011년 교보생명이 배출한 두 번째 사회적기업(공식명: 숲자라미)으로 인증

8)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근거하여,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1항에 따른 사행산업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10) 평가결과를 5개(S·A·B·C·D)등급으로 나뉘 평가결과 우수기관(S·A등급)은 매출총량 증액과 도박중독치유예방 부담금 감액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반면, 부진기관(C·D등급)은 매출총량 감액과 도박중독예방치유 부담금 증액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11) 주요 평가항목이란 레저산업의 건전화 노력, 도박중독 예방·치유 실적, 발매수익금을 통한 사회공헌 성과 등을 말한다.

12) 취업취약계층인 여성가장에게 무료간병 교육을 통해 간병전문가로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소득환자에게는 무료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 빠른 쾌유를 통한 사회복귀를 돕는 국내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이다.



받은 바 있다. 이렇듯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담은 사회공헌활동백서[제목: 교보생명 사회공헌활동(Kyobo Life Community Relations)]를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발간하다가 2010년 9월, UN GC 가입과 함께 국내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2011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로써 교보생명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보고서 누적 발간횟수는 사회공헌활동백서 8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3회로 비상장기업 중 압도적 1위이다. 2010년 UN GC에 가입하면서부터 보고서를 꾸준히 CoP로 검용해왔으며, 올해 발간된 2012년 보고서의 경우, G3.1, GRI 금융업 부가지표, UN GC, ISO 26000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사용된 모든 기준에 대해 대조표를 갖추고 있다. GRI 적용수준은 G3.1 기준 A+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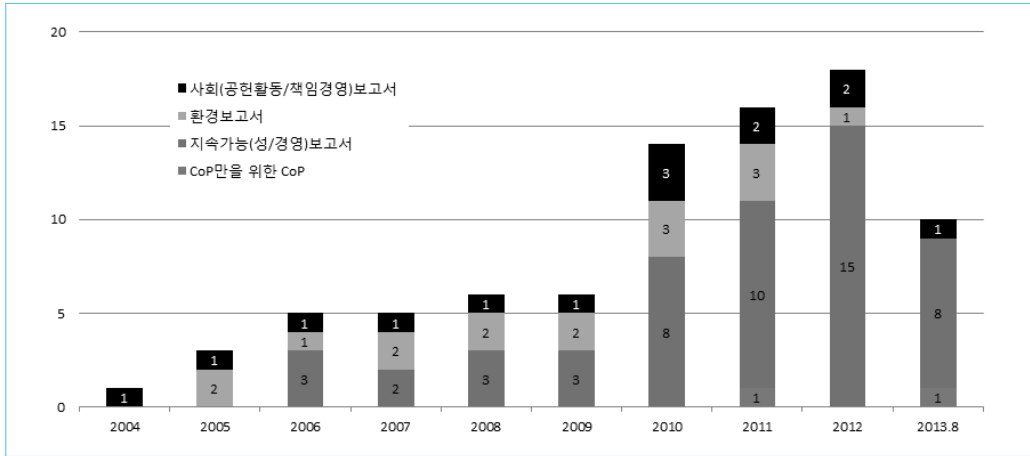
국내 최대 편의점 업체 **BGF리테일(舊 보광훼미리마트)**은 2008년 11월, 업계 최초로 UN GC에 가입한 뒤, 2010년 말과 올해 각각 CoP를 발간하였다. 35~40페이지 내외의 PPT 형식이며, 별도의 작성 기준이나 제3자 검증은 두지 않았다. BGF리테일은 비상장기업들 중 CoP자체를 보고서 제목으로 하여 발간하는 유일한 기업이다.

전 세계 알로에 원료 시장의 43%를 차지하는 **유니베라(舊 남양알로에)**는 2008년 12월 UN GC 가입 이후, 2011년 최초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올해 격년으로 두 번째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GRI G3을 따르고 있으며, 제3자 검증은 실시하지 않았다.

<표 3> 비상장기업 발간, 지속가능경영 관련 보고서의 발간 주기에 따른 분류

발간 주기	기업 수 (%)	기업 목록
매년 정기 발간	14 (66.67%)	애경산업, LS엠트론, 유한킴벌리, 경신, GS칼텍스, 한국스탠다드차타드그룹, LS전선, STX건설, STX에너지,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특수강, 포스코건설, 스포츠토토, 교보생명
격년 정기 발간	3 (14.29%)	현대엔지니어링, BGF리테일, 유니베라
불규칙 발간 혹은 발간하다 중지	2 (9.52%)	한국바스프 ('06, '08, '10 격년 발간하다가, '11, '12 매년 발간으로 바뀜) 한국 코카-콜라 ('07~'11 매년 발간이후 발간 실적 없음)
'12~13 최초 발간	2 (9.52%)	포스코플랜텍, 두폰코리아
총 21개 기업		

〈그림 1〉 비상장기업이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 관련 보고서의 연도별 발간 개수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3.8
사회(공헌활동/책임경영)보고서	1	1	1	1	1	1	3	2	2	1
환경보고서	-	2	1	2	2	2	3	3	1	1
지속가능(성/경영)보고서	-	-	3	2	3	3	8	10	15	8
CoP만을 위한 CoP	-	-	-	-	-	-	-	1	-	1
연도별 합계	1	3	5	5	6	6	14	16	18	11

### Ⅲ. 마치며

이상 국내 비상장기업이 지난 10여 년간 발간한 지속가능경영 관련 보고서 현황을 살펴보았다. 지속가능경영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는 전체 비상장기업 21개사 중 대기업 계열사(10사)의 경우, 핵심 계열사 주도의 순계열사적 지속가능경영 전략의 도움을 받기 마련이고 재정·인력 역량 면에서 유리하다. 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5사) 역시 본사 주도 하에 지속가능경영을 따라 실천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러할진대 대기업 계열사나 외국계 기업도 아닌 6개사<sup>13)</sup>가 비상장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경영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며, 이를 발판으로 지속가능경영 관련 보고서에 대한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인식 제고와 발간 기업의 확산을 기대해 본다.

13) 애경산업, 경신, 스포츠투토, 교보생명, BGF리테일, 유니베라(대기업 계열사, 외국계 기업 목록은 〈표 1〉 참조)